



보도시점 2024. 1. 24.(수) 10:30 배포 2024. 1. 23.(화)

도로·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손잡고 나선다

△ 과기정통부·환경부, 민간 모빌리티 기업(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네이버·현대자동차·아틀란)과 함께 ‘민관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TF’ 출범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기업*들과 함께 24일 오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차량 길 안내 서비스) 고도화 TF’를 출범하고, 금년 중에 차량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나 지하차도 인근(반경 1.5km 이내)을 지날 때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위험 상황을 전달하는 시범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자동차, 아틀란 등 5개 기업 참여 예정

작년 7월 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된 사고와 같이 도로 및 지하차도 등이 침수될 경우, 차량 내 운전자들이 실시간 현장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일부 내비게이션에서 결빙, 안개, 추돌사고지역 등 도로 위 위험상황정보를 제공 중이나, 주로 상황 발생 이후 통제 정보가 내비에 표출되는 방식으로 침수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움

이에 정부는 도로·지하차도의 침수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작년 7월부터 관련 기업들과 함께 내비게이션 고도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TF’는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의 주관 하에 카카오 모빌리티, 티맵 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자동차, 아틀란 등 ‘국민 안전’이라는 가치를 위해 자사 내비게이션의 고도화를 결정한 기업들이 참여하며, 향후 정기적 협의를 통해 기관별 세부 역할과 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출범식 행사는 참여기업별 내비 서비스 현황 소개, 정부 지원사항 발표, 세부 구축방안 및 일정 논의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시간 홍수예보 발령정보와 침수 위험 데이터 중계를 민관 협력 지원 플랫폼 기반으로 사전에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운전자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여 주의를 기울이거나 위험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의견을 한 데 모았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이 사전에 빠르게 홍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홍수예보 체계도 개선하여 올해 홍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홍수예보 발령 지점을 기존 대하천 위주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홍수예보를 발령한다. 또한, 홍수예보 알림 문자에 본인이 침수우려지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민 안전의 수호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국정과제”라며, “TF에 함께하신 민간 내비기업들의 결정에 감사드리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의 주관 부처로서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쉽고 빠르게 홍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환경부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예보를 올해 홍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 말했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수정 (044-202-6130)
		담당자	사무관	김도창 (044-202-6132)
공동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국현 (044-202-6430)
		담당자	사무관	최고석 (044-202-6435)
공동 부서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이상훈 (044-201-7651)
		담당자	연구관	박상근 (044-201-7662)
관련 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기술전략팀	책임자	팀 장	윤희근 (053-230-1701)
		담당자	책 임	장준희 (053-230-1796)



□ **개 요**

- (목적)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 홍수로 인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민간 내비게이션'을 고도화하기 위한 TF 출범
- (일시/장소) **23.1.24(수) 10:30~11:30**, 총 60분 / 그랜드센트럴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서울역 인근)
- (참석) 과기정통부, 환경부, NIA, 내비게이션 관련 주요 민간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자동차, 아틀란 등 - 세부 불임)

□ **TF 주요 추진 사항(안)**

- (목표) **도로 침수상황 우려 시, 내비 안내를 통해 운전자가 상황을 인지**하여 주의를 기울이거나 위험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유도
- (개선 방향) 환경부 홍수 위험 정보*를 활용,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km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 안내 추진
 * '24년 5월부터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에·경보 시스템 구축·운영 예정
 ** 하천범람 예상시 피해범위 검토 결과 국가하천 최대 1.56km, 지방하천 0.4km로 추정(환경부)
- (향후 추진계획) 정기적 TF 운영을 통해 **각 기업별 내비 시스템 개선 추진**(‘24년 중 예정)

□ **행사 일정(안)**

시각	일 정	비고
10:30 ~ 10:40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10)	과기정통부
10:40 ~ 10:50	기업별 내비 이용 현황 등 공유 (각 `5)	신규 참여 기업
10:50 ~ 11:00	정부 지원가능사항 발표 (각 `5)	과기정통부(기술지원) 환경부(정보제공)
11:00 ~ 11:30	세부 구축방안 및 일정 논의 (‘30)	참석자 전원
11:30	기념촬영	